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제5호 · 1999년 5월 20일 발행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5동 1-1

□ 인사말 □

우리의 목표는 송실 철학의 부흥과 발전



동문회장 박근용

계절의 여왕이라는 수사(修辭)가 실감나는 5월입니다. 날로 짙어 가는 신록의 빛깔이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합니다. 다시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우리 동문회는 철학과와 공동으로 지난 5월 13일 모교 과학관 102호 강의실에서 조가경 교수(뉴욕주립대학교/버팔로)를 강사로 모시고 제1회 「송실철학강좌」를 열었습니다. 조 교수는 그 자리에서 '동서 철학 매개의 미래'를 열어 보였습니다. 강좌는 재학생과 송실대학교 인문대학 교수들, 다른 대학교의 교수들, 경향 각지의 동문 등 여러분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송실대학교 철학과는 일찍이 「사상강좌」를 열어 이 땅의 철학계에 그 존재를 뚜렷이 각인시켰습니다. 사상강좌는 1960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첫 번째 강좌를 연 다음 1973년 여덟 번째 강좌를 끝으로 막을 내릴 때까지 '현대철학의 과제', '새 시대의 사상적 모색', '역사의 창조', '지성의 좌표'와 같은 문제를 다루며 새로운 사상에 목말라 하던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삶의 이정표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제 막 첫 삽을 뜬 송실철학강좌는 혈통상 사상강좌의 후신이 되는 셈입니다. 자못 심각한 어조로 인문학의 위기가 회자되는 이 시점에서 송실철학강좌가 인문학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길 바라며, 우리 동문들에게는 자기 계발과 재충전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나아가 송실철학강좌가 60년대 사상강좌의 뒤를 수행함으로써 송실대학교 철학과와 옛 명성과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실철학강좌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3회씩(3월, 4월, 5월; 9월, 10월, 11월) 개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철학과 교수님들께 일임하고 동문회는 뒤에서 후원하는 형식을 취할 것입니다. 철학과 교수님들께는 전문적인 철학의 문제뿐 아니라 시사적인 문제, 기독교와 문화의 문제, 학교발전의 비전, 평화와 통일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범하는 송실철학강좌의 전도를 축하해 주시고 배전의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속간된 「소식지」에 많은 동문들께서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늘 애정을 갖고 후원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송실대학교 철학과와 부흥과 발전입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모두 미력이나마 보탬시다.

동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동문회장 박근용 목사: 35회·전 서울장신 학장, 현 학교법인 송실재단 이사)

● ● ● ● 원 고 모 집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의 소식지는 동문 여러분의 이야기와 글로 꾸며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육고를 기다립니다.

- 종류: 은사에 대한 회고, 재학 시절의 일화, 모교 발전을 위한 제언, 동문들의 동정 등 제한 없음.

- 제출: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5동 1-1
송실대학교 철학과 사무실

tel.: (02) 820-0370 / fax: (02) 824-4382

e-mail address: philosophy@saint.soongsil.ac.kr

* * *

(4면에서 계속) '大家'가 더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다양성(중국)의 틀을 확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서 보면 위진 현학을 한대의 유학자들이 용인할 수 없는 기이한 유행 — 유가와는 전혀 대립적인 사상의 추종 — 으로 보는 해석은 참으로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이다. 현학의 내용이나 놀이도 결국은 '사마천 大家'의 손오공'이기 때문이다.

기이한 예외가 있다면 불교와 기독교였을 뿐이다. 불교는 손을 들고 들어갔기에 성공했으나 기독교는 총을 들고 갔기에 아직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들어갔으므로 혹 한 백년쯤 후에는 어느 정도 성공할 지도 모르겠다. (필자: 66회·대학원 박사과정)

□ 同門斷想 1 □

사마천의 『사기』와 중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斷想

김시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은 漢代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다만 漢帝國으로 가는 과도적 시기였을 뿐이다. 우리가 중국을 말하려면 적어도 사마천을 떠올려야 한다. 캣시러는 “민족이 신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화가 민족을 만든다”고 갈파한 적이 있다. 선진만 해도 중국인들에겐 공통의 신화가 없었다. 공맹은 堯舜을 칭송하였으나 다른 여러 제자들은 무슨무슨氏를 말한다. 적어도 신화적인 계보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목자와 공자는 같은 계보에 속한다. 흔히 우리는 지나치게 철학사에 미혹되다 보니 실제의 역사 과정을 소홀히 한 탓에 선진 중국 철학의 세계를 너무나 개념적으로만 읽는다. 그러나 중국은 개념으로 철학한 사람이 없다. 적어도 불교 이전의 문헌에서 나는 개념적인 접근(conceptual approach) 방식으로 철학 하는 이가 없었고 오로지 실천적인 접근에 치중하였다고 본다.

사마천은 『사기』의 처음을 五帝本紀로 시작하는데 이러한 저술 방식은 그 이전에는 없던 것이다. 사마천은 黃帝를 중국 민족의 시조로 하여 그 이전의 수많은 부족신들을 하나의 계보 속에 끼워 넣는다. 적어도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사람은 진시황이나 한 무제도 그리고 동중서도 아니다. 그는 바로 사마천이다. 그는 사상을 통일하고, 인간을 통일하고, 문화를 통일하고, 역사를 통일하였다. 진시황이나 무제가 통일한 것은 정치 세계일 뿐이다. 진시황이 중국의 터를 닦았다면 사마천은 그 위에 성벽을 세우고 건물을 세웠으며 그 땅의 역사와 풍토, 그 안에 살고 있고 또 살아가게 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기』는 중국 최초의 역사이며 그 완성이다. 『戰國策』이나 『춘추』가 중국의 역사가 된 것은 『사기』 덕분이지 그 자체로 중국의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마오쩌퉁의 중국이 깨지고 분열한다면 『사기』는 새로운 세계로 바뀌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 이전의 모든 법이 로마로 흘러 들어가서 그로부터 흘러 나왔다면, 중국 세계에서는 모든 역사가 『사기』로 흘러 들어가서 그로부터 흘러 나왔다. 따라서 중국은 공자의 중국이 아니라 『사기』의 중국이다. 물론 이러한 발언은 철학사적인 발언이 아니라 사상사적, 역사적 발언이다. 공자는 그러한 역사를 가능하게 한 신화의 그림자일 뿐이며 상징일 뿐이다.

고대사 — 로마 제국과 한 제국 이전의 신화적인 역사 시대 — 를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차이점은 동서 양자가 모두 거대한 다원적 세계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른바 ‘역사’의 탄생 과정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리스에서는 역사가 신화를 비판하며, 투쟁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이와 달리 중국은 역사가 곧 신화이고 신화가 곧 역사이다. 유가와 도가 등 수많은 학파들이 난립하였지만 최후의 승리자로 유가가 깃발을 꽂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가의 그러한 포용력에 있었다. 로마는 수많은 제도들을 수용하고 종합하는데 탁월한 것처럼 수많은 신들을 용인하고 인정해 주었다. 로마의 판테온은 그런 것을 쉽게 이해하게 해 준다. 중국의 유가도 이와 비슷한 사상 경향을 보인다. 공자는 결코 신화를 비판하지 않았다. 중국의 신화학자인 원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공자가 비록 비합리적인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이것 또한 현대적 해석이다) 공자는 주변과 어울려 일군의 신화의 중심 인물, 중심 소재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유가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신화든 실제의 역사든 가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모두 인간화시켰다는 데에 있다. 『사기』의 세계에는 神이 없다. 모두가 인간이다.

내 생각에 이러한 신화의 역사화(인간화)를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맹자이다. 그는 전해져 오는 어떤 이야기든 자기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는다. 그것이 허위이든 역사이든 신화이든 중요치 않다. 다만 그것에 의해 지금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만 말한다. 사마천의 『사기』 또한 그러하다. 黃帝가 중국인의 조상으로 처음에 나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 일 뿐이다. 사마천의 지혜는 "역사는 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데에 있다.

물론 선진 중국에는 다양한 경향이 존재하였다. 集權化의 경향을 따르려는 사람들과 分權化의 경향을 따르려는 경향들이 다양하게 존재, 난립하였다. 그렇다면 『사기』와는 다르게 중국 세계를 말하는 이도 있는가? 물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한 주요 문헌으로 『山海經』과 『楚辭』를 말한다. 『장자』는 다소 곤혹스러운 책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러한 두 경향이 공존하고 있으며, 두 경향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면모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자 內篇의 기본 입장은 분권을 강조한다. 즉 治를 말하지만 그때의 治는 "多의 共存"에 있다. 그러나 外篇과 雜篇에서는 帝王術을 말하기도 한다. 동일한 無爲를 사용한다고 해서 같은 사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무위는 지극히 다양한 의미와 맥락을 갖는 治에 관한 공통 용어이기 때문이다. 『산해경』 연구자들은 책의 특징이 광장히 미묘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방향이나 기준, 중심의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곳이 다 중심이다. 이러한 사상 경향은 분권화의 경향 혹은 "多의 공존"의 논리와 상당히 유사하다.

『장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선진 사사의 참된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사마담(사마천)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論六家要旨"의 요체는 다양한 학파에 대한 보고와 비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담론의 장'의 건설, 하나의 중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중국인들이 중국인이게끔 하는 표지의 한계와 의미를 밝힌 글이다. 유가와 도가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며 묵자도 법가도 다 마찬가지로이다. 중국을 들여다 보라. 중국에는 이러한 다양성들이 다 있다. 없는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는 함께 산다. 따라서 사마천의 세계에서는 儒家인가 道家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의 총체로서의 (2면에 계속)

□ 同門斷想 2 □

IMF와 청어

김지현

“IMF” 체제는 “危機”라는 용어를 생활화시켜 놓았다. 경제적 위기에서 비롯된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온 나라와 국민의 마음 구석구석을 엄습하여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인간과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견해보다도 “경제적 잣대”가 우선하는 시대 속에 부유하지 못한 대다수의 소시민들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IMF 경영합리화의 유행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핵심역량” 이야기이다. 기업마다 조직마다 핵심역량의 강화를 위해 조직구조의 슬림화와 예산절감을 외치고 있다. 줄이고 줄이고 또 줄여서 최소화하는 것, 오직 “절감의 미학”만이 있을 뿐이다. 일면 합리적인 듯하나 종내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사람을 위한 기업이요 조직일 터인데 결국 사람마저도 절감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절감을 위한 절감”이 되고 마는 것이다.

진정한 핵심역량의 강화란 무엇인가? 현재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최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점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장점이 단점을 압도하도록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줄이는 것만이 능사이겠는가?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고 육성해 가는 것이 앞서가는 기업, 최고의 조직을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위기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 위기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이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위험한 순간에 기회는 같이 온다는 의미일 것이다. 개인에게나 조직에게나 위기는 닥쳐올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위기에서 새로운 돌파의 기회를 만들어 내는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힘! 요체는 위기관리의 능력인 것이다.

청어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북대서양에서 생포된 청어를 그냥 바닷물에 넣어서 운반하면 시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열이면 열 다 죽고 만다. 그러나 상어와 함께 넣어 옮긴 청어는 대부분 살아 남는다. 상어가 주는 위협 때문이다. 금방이라도 잡아먹히고 말 것 같은 치명적 위기가 오히려 생명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이 되고 마는 “逆說”이다. (필자: 63회·모교 교록실 직원)

동문회

I. 동문회 행사

▶이사회 및 신년하례식 개최

동문회에서는 1999년 1월 11일 (월) 오후 5시 모교 사회봉사관 튜울립 홀에서 새해 첫 이사회를 열고 상견례를 가졌으며, 6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신년하례식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신년하례식에는 약 60여명의 동문들이 모였으며, 이 자리에서 최명관 교수님은 새해를 여는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김필신씨(70학번)를 준회원으로 승인하였다. 김필신 동문은 송실대 철학과 3년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983년 김 신이라는 필명으로 송실대 철학과 시절을 그린 소설 『대학별곡』을 발표하여 문단에 데뷔하였다.

II. 동문 동정

▶**김영덕** 동문(52회·연극인) 금년 3월 3일 질병으로 별세하였다. 유족은 교인의 유지에 따라 소장하고 있던 장서 800여권을 모교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교인은 재학 시절 송대극회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 교인의 명목을 빈다.

▶**김영규** 동문(43회·목사) 미주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여 1998년부터 서울 반포 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시무중이다.

▶**정영환** 동문(34회·목사/대구제일교회) 금년 2월 8일부터 10일까지 낙산비치 호텔에서 열린 모교 교수신앙수양회에서 "송실의 신앙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신앙 강좌를 2회에 걸쳐 열었다.

▶**김필신** 동문(70학번/준회원·소설가) 1999학년도 1학기부터 모교 문예창작학과에 출강하고 있다.

▶**김선태** 동문(39회·목사/실로암안과병원 원목실장) 작년 12월 19일 영락교회에서 열린 제1회 송실인상 시상식에서 사회 복지대상을 수상하였다. 송실인상은 송실인상재단(이사장 박준구 천안정보교 교장)이 송실의 건학이념을 받들어 모교를 빛낸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사회 복지대상 외에도 형남학술대상, 추암목회대상, 베어드교육대상, 고당경제대상 등이 있다.

▶**김재홍** 동문(56회·대학원 철학박사) 1998년 가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을 까치출판사에서 번역·출간하였다.

▶**제갈창수** 동문(50회·대학원 철학박사) 금년 3월 의정부 소재 경민대학 자치행정학과에 겸임교수로 부임하였다.

▶**최태연** 동문(석사 91학번·자유 베를린 대학 철학박사) 1998학년도 2학기부터 모교 기독교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철학과

I. 철학과 교수 동정

▶**안병욱** 교수 작년 10월 22일 도산인상위원회(위원장 김태길)가 주관하는 제3회 도산인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9일영락교회에서 열린 제1회 송실인상 시상식에서는 형남학술대상을 수상하였다.